

금융파업을 돌아보며

김득연

금융노조 조홍은행지부 조사연구부장

금융인이 아니면 이해하지 못할 몇 장면들

7월 11일 오후 7시 30분 경, 연세대 노천극장을 가득 채운 채 24시간 동안을 꼬박 잡 한 숨 안자고 장대비를 맞으며 지새운 삼만여 금융 노동자들은 노정협상을 마치고 돌아온 금융노조 이용득 위원장의 총파업 승리 선언에 연세대 노천극장을 날려 버릴 듯 광분에 가까운 환호와 함성을 한참 동안이나 그치지 못했다. 이러한 축제 분위기는 같은 시각 전산담당 조합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던 명동성당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그러나 명동성당에서는 이와 동시에 (그 분위기를 조금도 누그러뜨리지는 못 했지만)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명의의 유인물이 돌고 있었다. 도대체 내용도 잘 모르고 승리라고 좋아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선 합의내용을 차

분히 들어보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도 좋을지 어떤지, 파업을 종결할 만한 내용인가 어떤가를 판단해야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다.

사실 그때의 분위기는 대다수 조합원들이 구체적인 내용 설명보다는 위원장의 승리 선언 그 자체에 열광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였다. 노동 관련 언론사의 한 기자는 7.11 총파업 투쟁을 취재하면서 파업 종료 후 합의내용에 대한 조합원들의 질타와 비판이 인터넷 사이트에 쏟아지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오히려 조합원들은 총파업 투쟁에 대한 승리감과 자긍심에 흥분을 쉽게 가라앉히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왔다.

7.11 총파업 투쟁을 마무리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금융인들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정서적인 특수성을 갖고 있다.



보라마공원에서 열린 총파업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금융노조원들.

기사제작부-2000.8.9

2000년 7월 11일의 총파업 투쟁은 금융인에게 참담한 폐해감과 모멸감만을 안겨 주고 사랑하는 동료들에 대한 무자비한 대학살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1차 구조조정과 1998년 9월 29일의 실패한 파업투쟁에서 연장되고 있다. 분명 7.11 총파업 투쟁은 그 연장선에 서있으며, 그것을 통해 7.11 파업의 평가가 좀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번 파업이 1998년의 복수전과 금융 노동자들의 자존심 회복 투쟁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7.11 총파업 투쟁을 평가함에 있어 주관의 오류에 기울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파업 당사자들의 주관적인 정서와 의식상태, 역량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서이며, 바로 그것으로부터 이번 7.11 총파업을 대

하는 조합원들의 의지와 대오에 대해 정당한 진단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무서운 금융인의 준비된 산별 총파업

7.11 총파업 투쟁은 '온둔생활을 하던' 금융 노동자들을 '온둔으로부터 해방 시켜준' 일대 사건이었으며, 세상의 모든 눈과 귀를 금융인의 무서운 팬동질과 합성소리로 집중시키게 해 주었다. 이글거리는 분노의 눈빛으로 총파업 투쟁을 향해 앞만 보고 나아가고 있는 금융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저들이 말끔한 외모로 창구를 지키던 은행원이 맞는가 하고 의아하게 여기기도 하였다. 이렇게 뭔가 끝장을 보자고 나가던 금융인은 스스로 도 놀라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총파업 투쟁은 산별노조라는 강력한 조직적 틀을 통해 긴 시간동

안 준비된 파업이었다. 금융노조는 2년 동안 산업별 노동조합을 건설했고, 이 나라에 외환위기를 해소할 구세주인 양 들어온 IMF가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위해 우리에게 왜곡된 경제정책을 강요한 점령군이라는 사실을 부각시켜 그들을 법정에 제소하기도 하였으며, 금감위 앞에 서의 수십 차례의 시위, 금감위 로비와 회의실에 대한 기습 점거농성, 정부의 금융 및 경제 정책에 대한 성명 및 보도자료 배포, 기자회견, 서명운동 등 제2차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투쟁을 펼쳐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금융인이 그렇게 무섭게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속한 조직의 틀을 넘어서 조합원들 스스로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라는 단일한 조직에 속해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불법 투쟁을 불사한 조합원들의 강고한 투쟁의지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힘이 불법 정치파업의 협상장에 정부 관료를 불러올 수 있었고, 각 금 사회단체나 조직들의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냉철한 평가와 대안 마련에 소홀한 지도부

이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7.11 총파업 투쟁은 그 의미와 성과가 매우 크고 의미 있는 일임은 분명하고 그것이 과소 평가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까지나 자화자찬식 평가와 환

호에 안주해 있을 수만도 없는 일이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 사회를 비인간적인 신자유주의 사회로 재편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강제하고 있는 자본과 권력의 총공세를 받게 되는 일차 타깃이 바로 금융산업이 되기 때문이고, 여기서 금융 노동자들이 얼마나 강고한 진지를 구축하는가가 이 나라 전체 노동자들의 명운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지난 7.11 총파업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들 자신의 오류와 한계 등을 냉철히 짚어보고 이후의 대안을 모색해야 할 엄중한 책임감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건설적인 평가와 반성은 어느 자리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금융노조에 집중되어 있던 총파업 투쟁위원회는 사실상 해산하여 파견 간부들은 각자 자신의 조직으로 돌아가 버렸고, 규약상의 중앙위원회나 실질적인 의결단위인 대표자 회의에서 조차 이렇다 할 평가가 수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그런 논의가 기대될 만한 상황도 아닌 듯 보인다.

이렇듯 지도부가 7.11 총파업 투쟁의 냉철한 평가와 반성을 통한 대안 마련에 소홀한 것은 총파업 투쟁의 후유증으로 조직의 상황이 좋지 않은 지부 및 회원조합이 여럿 있는데다가, 지도부 내부에 총파업 투쟁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통해 자기비판과 상호비판을 조직의 발전으로 승화하고자 하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노장교섭대이불의 금융노조 지도부. 우리에게는 지난 7.11 총파업 과정에서 나타난 무리를 자신의 오류와 함께 등을 냉철히 짚어보고 이후의 대안을 모색해야 할 엄중한 책임감이 부여되어 있다.

소양을 소유하고 있는 활동가가 거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구나 타 조직이나 간부에게 어떤 비판을 가하는 것이 조직력의 약화 내지는 이탈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고 누구도 그것을 먼저 나서서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또한 총파업을 거치는 동안 비민주적이 고 관료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많은 지부별 조직의 모순이 심각한 내부 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우도 허다해서 산별노조 차원의 시원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총파업 투쟁에 대한 평가 작업이 마치 지부별 잘잘못을 따지는 일처럼 인식되고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라는 문제로 여겨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작업이 산별 조직 차원에

서 행해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될 수는 없는 일이다. 금융노조 내의 개인이든 소그룹이든 아니면 외부 조직에서 어떤 형태로든 제기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부인할 수도 없을 것이다.

총파업 투쟁의 과정에 나타난 몇 가지 문제들

총파업 투쟁을 통해 보여준 금융 노동자들의 저력을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그러나 때로는 투쟁의 경험과 훈련의 부족으로 인한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앞으로 시급하게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만한 심각한 문제들까지 여러 가지 오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사소해 보이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것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집회장 주변 정리 문제일 것이다. 집회를 마무리하고 나서 조합원들은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자신의 주변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는 있었을 것이다. 사전에 쓰레기 비닐을 나눠주고 나서 주변의 쓰레기를 모아두기만 했어도 비에 젖은 쓰레기 더미를 밟고 지나가는 조합원들의 자책감과 모두가 떠난 뒤의 집회장을 본 사람들의 실망감은 없었을 것이다. 또한 자신이 어지럽힌 주변을 정리하는 것도 조합원들로 하여금 우리의 투쟁이 가지는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극복하지 못한 종업원 의식

또한 이번 총파업 투쟁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 문제로는 아직도 많은 조합원들과 심지어 상임간부들까지도 자신이 속한 기업의 종업원이라는 의식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총파업과 자신이 속한 기업의 배타적 이익을 병치시키고 싶어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의외로 많은 조합원들이 파업을 하면서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배려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것이 파업 종료 후에 노동조합으로부터 파업 미단으로 선정되기도 한 경우까지 있었다. 이것은 자신이 속한 회사의 불매운동까지 조직하고 있는 타 업종 노동자들의 파업투쟁과 비교해볼 때 현저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예들은 아직도 산별 차원의 조직력이 조합원들에게 미치기 전에 지부 차원의 노사협조주의, 단위 사업장 중심주의가 더욱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많은 단위조합 대표자들은 그러한 단위 사업장 차원의 저급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그들의 입지가 강화된다고 믿고 있을 것이며, 그들에게 산별이라는 큰 조직의 활동가로 묻히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조직의 '풀 나는' 간부로서의 '영광스러운' 활동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또한 금융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종업원 의식의 저변에는 자신이 속한 회사의 퇴출이라는 극한 상황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존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회사의 존속과 번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식이 허위이며 노동자들은 회사의 홍망을 넘어서는 고용안정과 최소한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투쟁하도록 단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후 산별 차원의 대조합원 홍보 및 교육의 중심 테마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으며 산별 조직력 강화가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장기전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던 전술배치

7.11 총파업은 누가 보아도 하루 짜리

파업이었다. 물론 금융업의 특성상 장기 전에 돌입하게 될 경우 많은 조합원들이 쉽게 이탈할 것이고 파업을 지속하기 조차 힘들 것이라는 현실적 판단으로 인해 하루 짜리 초단기전으로 승부를 보자고 기획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협상 타결 직전 상황은 파업을 마칠 시간을 정해놓고 어찌되는 무조건 합의해야만 할 것 같은 상황이었고, 24시간을 꼬박 새운 조합원들이 이틀 이상의 파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적 심리적 물질적 준비와 지도부의 방침이 전혀 준비되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곧바로 조합원들의 급속한 대오 이탈과 협상력의 저하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틀을 넘기는 장기전에 대한 대비가 없기는 산하 지부 조직들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파업 진행 물자와 준비된 자금을 하루동안 거의 다 쏟아 부었고, 지방 조합원들에게는 당일 중에 돌아갈 마지막 차표까지 미리 준비시켜두고 있기도 했다.

어쩌면 하루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만 한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던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하루 동안의 파업에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 있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했고 만약의 경우 협상이 결렬되었다면 속수무책으로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규찰대, 사수대의 운영문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지도부에서는 규

찰대와 사수대를 4천 여명 확보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규찰대는 파업 돌입 즉시 조직되지도 못했고, 임기응변으로 그때그때 집회 사회자의 방송을 통해 모집하는 방식으로 약 50여명 정도가 가까스로 유지되고 있었다.

단순한 집회가 아닌 총파업 상황에서는 파업 돌입 순간부터 우리의 대오를 공권력으로부터 지키고 내부의 이탈자를 막기 위한 규찰대와 사수대의 조직이 필수적이고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3만이 넘는 본 대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찰대, 사수대가 위력을 발휘할 만큼 조직되지 못한 것은 이후 투쟁을 조직할 때 충분히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집회장을 총괄하는 공식적인 상황 전달자와 지침 시달권자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못하고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 각기 다른 상황들이 전달되는 체계상의 혼란을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규찰대와 사수대의 조직 미흡으로 인해 손을 쓸 수 없었겠지만 집회장 주변 질서유지와 과도한 음주단속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산별 조직의 내실

총파업 투쟁 직전에 산별노조인 금융노조에 가입한 조직은 18개에서 22개로 늘어났다. 정상적인 노동운동 조직이라면 총파업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단위

사업장 밖의 제도와 법과 권력의 제한으로 인해 더욱더 강력하고 큰 조직을 지향하고 조직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산별 조직의 확대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규모가 커진 산별노조 조직 내부의 통일성, 조직통제력, 규율 등이 파업을 거치면서 더욱 강해졌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특히 산하 지부 조직에 대한 조직 통제력은 지부 자체의 조직 내부 문제 수습 등을 이유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며, 총파업 기간 동안의 반조직 행위에 대한 최소한도의 징계조치도 거론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반조직 행위로 인해 조합원들로부터 원성과 반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조직의 지도자들이 일방적인 자화자찬식 평가로 조합원들을 기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별노조 본조 차원에서 거의 대처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산하 지부조직들은 총파업 투쟁의 성과를 지나치게 미화 확대하기에 급급해 하고 있으며, 지부 위원장들을 기리는 송덕비를 세우듯 내부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안타깝게도 총파업 투쟁의 성과를 산별노조 강화로 이어가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나서는 대표자가 정말로 아무도 없다.

원인과 대안

이러한 문제는 어느 조직이든 대표자 1

인에 의해 그 조직의 진로가 좌우되는 조직운영의 뿌리깊은 비민주성과 관료적 조직문화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형식적인 과정을 모두 거치긴 했지만 지부별 산별노조 가입 여부도 대표자의 의지에 크게 의존한 것이었고, 파업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 소속 조합원 전체가 총파업 대열에 합류할 것인가 이탈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대표자 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는가?

그러나 어찌 보면 이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현상이지 원인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대표자 한 사람의 독단이 전체 조합원의 의사에 반할 때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체제가 준비되어 있다면 그러한 독단과 전횡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노조 산하 각급 조직 내부에 자생적 현장조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자신들의 입장과 의견을 분명히 표명할 수 있는 현장조직이 거의 조직되고 있지 않은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는 집행부—특히 대표자 한 사람—의 치분만을 그저 기다리고 싶든 좋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노동조합 운영의 관료화와 비민주성을 막고 금융노조가 진정으로 투쟁하는 조합원의 조직으로 거듭나는 길은 기회주의적 경향과 인자들에 대해 투쟁하는 현장 활동가들의 발굴과 조직화를 통해 일부 험량 미달, 어용, 무능 지도부를 바꿔나가는 일일 것이다.

남은 과제

총파업 투쟁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많은 사회 단체와 조직들과 연대를 했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사회진보연대 등이 파업 지지성명을 발표했고, 연세대 총학생회와 노학연대팀의 활동은 온몸을 다 바치는 헌신적인 것이었다. 또한 각급 시민 사회단체들도 연대의 뜻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이제 우리는 그들과의 일회적인 연대를 넘어 상시적인 연대활동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우리 금융노조 내부에도 어느새 잠입해오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조합주의 경향에 대한 경계도 게을리할 수 없을 것이다. 시민운동 단체의 주장과 같이 자유주의적이고 심지어는 주주와 자본의 이익을 옹호하는 경향이 노동조합 활동의 본령을 넘보고 있는 상황이 노동계 여기저기서 목도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비인간적인 신자유주의적 사회 개편을 저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물론 작성하자 조심하자는 다짐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고 금융노조 차원의 정책 생산과 채택과정, 그리고 실천 방침의 결의 과정이 좀더 객관적이고 많은 토론을 통해 검증되도록 조직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관치금융 청산을 목표로 한 7.11 총파업 투쟁은 보는 관점에 따라 성공이라고도 실패라고도 할 수 있다. 그것은 달리 말하자면 우리의 실천적 과제들이 그만큼 더 많이 남아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금융노조가 총파업 투쟁의 성과를 살려 지속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저지 투쟁의 한길로 매진하는 길은 이완되고 있는 산별 조직의 조직력을 긴급하게 강화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금융노조는 금융노조만의 것이 아니다. 어렵게 세워놓은 산별노조 조직을 바짝 더 조여서 전 조합원이 금융노조에 조합비를 납부하고 전 조직의 역량을 산별 노조에 집중시킬 수 있는 산별노조 완성을 위해 전진의 발걸음을 한시도 늦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